

금남로에서



기현호  
수석논설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은 깨져야 한다.” 이제 막 전당대회라는 축제를 통해 대표를 새로 뽑고 재탄생한 정당에 보내는 언사치고는 고약하다. 주변에서는 그보다 더 험한 소리가 오래 전부터 들렸다. 공감한다. 그래서 거듭 강조한다. 지지자들의 여망을 실현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실마리조차 보여주지 못 할 바에는 사라지는 게 낫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고 있다. 집권 초기부터 계속되는 인사의 난맥상이다 세월호를 통해 보여준 무력감, 청년실업, 심화되는 양극화, 늘어나는 부채 등 실망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세·복지문제까지 크고 작은 논란과 실정의 연속이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사실상 꺾인 상황이라고까지 진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대안이어야 하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다. 정권

새정치민주연합, 생사기로에 섰다

의 추락으로 인한 반사이익마저 누리지 못한 채 호재와 호기를 지나 보내고 있다. 야당보다 더 못하다는 지탄마저 받고 있다. 왜 그러는지 국민은 다 아는데 야당 자신들만 모른다. 민생은 양중에 없고 내 편 내 편 가르며 다루는 모습에 지지자들은 등을 돌렸다. 내부 이념갈등과 강온대립이 그들의 민낯이다. 국회의원을 어떻게 한 번 더 할 것인가에 목을 결별 정권교체를 위해 당력을 모으는 것은 관심 밖이다. 희생과 양보가 없다.

여당보다 더 지탄받는 야당

10여 년 전 아들이 리틀야구 선수로 활약할 당시 같은 팀 선수들을 모아놓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 애들에게 스포츠맨십과 팀워크, 승부근성 등에 대해 강의를 했는데, 기억나는 대목이 '사이클링히트'다. 타자가 한 경기에서 홈런과 3루타, 2루타, 1루타를 한꺼번에 치는 것으로 30년이 넘는 한국 프로야구사에도 10여 개뿐인 기록이다. 선수에겐 최고의 영예다. 그래서 물었다. 만약, 여러분이 홈런과 3루타, 2루타를 치고 이제 1루타 하나만 대기록이 수립되는 마지막 타석에서 안타를 쳤는데 공이 펜스까지 굴러가면서 2루타도 충분한 상황이 벌어졌다. 어떻게 하겠냐고. 애들은 하나같이 '무슨 소리냐,

무조건 뛰어야지, 이기기 위해서는 내 기록이 중요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로 그걸, 팀 승리를 위해 일생일대 한번 올까말까하는 기회를 과감히 내던지는 희생정신이 팀워크라며 다독여줬다. 후보단일화에 실패했던 김대중, 김영삼에게서 보듯 정치의 속성상 희생이나 양보가 어렵다. 정치인들과 그 언저리에 있는 부류들은 권력의 달콤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 영달만 추구하는 행태가 바로 야당 혐오의 비수가 되어 쫓기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번 당권 경쟁이 국민의 관심조차 끌지 못했던 것도 그런 연유다. 계파와 지역싸움이 전부였다. 오죽하면 '홍형, 감동, 비전 전무(全無)' 전당대회라 했을까. 거기다가 문재인 당선으로 친노정당의 색깔이 갈색졌다. 앞으로도 계파 간 대립은 이어질 것이고 총선을 앞두고 이전투구는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당 희생 자양분은 자기희생

지역에서는 '한번 실패했는데 변한 것 없는 브랜드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냉소까지 퍼져있다. 문재인 대표와 야당의 선결과제는 자신과 당을 바꾸는 것이다. 영혼 없는 '노무현 당'으로 회귀는 의미 없다. 이미지

타피를 넘어 완전 탈바꿈해야 한다. 호남의 민심은 당을 살리는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당 희생의 최고 자양분은 바로 자기 희생과 양보다. 친노 당직 배제 정도로는 어렵었다. 국회의원 공천에서 친노와 관계 단절을 무기로 통합에 나서야 한다. 정책역량을 키우는 것은 그 다음이다. 팀워크를 회복해서 정권교체의 싹을 키워야 한다. 그것이 안 된다면 늦기 전에 당을 깨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결판을 내고 흩어지는 것도 불품없는 기독교에 안주하지 않는 용기 있는 자기희생이다. 유권자들은 진영에 따라 움직인다.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끼리 먼저 보수든, 진보든 자신들의 이념 충을 수용하고 야당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 아권분열로 보이지만 세력확장이다. 그것이 후일을 도모하는 기반이다. 그런 차원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의 최근 발 빠른 좌클릭행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선수를 뺏길 수 있다. 민심은 정치인들보다 훨씬 앞서간다. 야당이 민심을 따라잡지 못하고 또다시 각자 욕심만 쟁긴다면 애들만도 못한 자(者)들이란 소릴 듣게 된다. 호남은 그런 집단에 더 이상 표를 주지 않는다. /khh@kwangju.co.kr

은편칼럼



류동훈  
행복문화사업단 단장

작년 8월 완도군 청산도에 농촌체험행사를 가서 범바위를 올라간 적이 있다. 자석 성분이 강한 범바위 근처에서는 나침반이 빙빙 돌고, 바위에서는 바람소리가 호랑이 울음소리처럼 난다 하여 범바위라고 부른다. 바다 풍경은 한 폭의 낭만적인 그림이다. 그 범바위 앞에 호랑이 모양의 조각이 있어 사람들은 그 위에 올라타 범바위를 배경으로 사진을 많이 찍는다. 필자도 그 호랑이 위에 올라타서 한참을 멀리 바다를 내다보았다. 그때 광주에서는 지하철 2호선 재검토 논란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라 있을 때였다. 나는 호랑이 바위에 앉아 광주 지하철을 고민했다. 광주는 지하철 문제에 있어서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생각했다. 지하철 1호선은, 순환선인 2호선과 광주를 세로

호랑이 등에 올라탄 광주지하철

로 가로지르는 3호선을 전제로 하여 광주를 가로로 지르는 직선 노선이 만들어졌었다. 다시 말해 지하철 1호선은 2호선이 만들어졌을 때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2호선 건설 준단을 재검토하였으나, 최종 결론은 2호선을 교통 복지자원과 도시경쟁력을 고려하여 건설을 추진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이제 광주는 2호선 건설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모아 갈 것이다. 당분간 2호선 건설 동안 일정 정도의 교통정체는 감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하철 2호선이 가져올 재정적 부담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호랑이 등에서 살아남 방법을 찾아 정신 바짝 차리고 호랑이와 친한 친구가 되어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탈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필자는 딸아이가 들어 있다. 딸 아이 둘이 서로 사이좋게 그림 그리기도 하고, 어울려서 노는 것을 보면 서로 평생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 같아 흐뭇하다. 지하철 2호선도 마찬가지다. 1호선과 보완 기능을 하면서 승객 확대와 쾌적한 도심 교통을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할 것이

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2호선을 맞이한다면 광주 시민들의 삶은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광주는 '광주를 살리고,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지하철 2호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중교통 사랑운동'이다. 아무리 좋은 지하철을 만들어 놓아도 이용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현재 버스만으로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하기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지하철2호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지하철은 빠르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하다. 그래서, 시민들은 지하철을 광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타 보아야 한다. 그 지하철에서 광주의 미래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미 만들어 놓은 지하철을 많이 이용해서 본전을 뽑아야 할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자를 VIP로 만들어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장, 구청장, 시의원, 시 국장급 이상 간부들은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번 이상은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만들고, 실제로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체감하면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는 시장과 대중교통 전문가, 환경전문가 등의 멘토로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들을 존경한다는 인사와 대중교통 이용이 환경문제 해결과 교통난 해결에 얼마나 기여가 큰 것인가를 각종 방송과 캠페인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중교통 사랑 캠페인 교육, 관련 문화행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물을 사서 마시는 시대에 와 있다.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은 공기를 사서 마시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지금 편하게 타고 있는 승용차에서 뿜어나오는 매연가스는 후손들에게 환경재해가 될 것이다. 그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대중교통 사랑에 대한 범시민적 실천 의식이 자리 잡을 때 지하철2호선의 미래는 다양한 호랑이로 다가와 광주와 미래에 희망이 될 것이다. 대중교통 사랑운동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피 흘렸던 5·18 시민항쟁과 같은 마음으로 추진해야 한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박남인  
광주시 교통건설국장

호남선 사·도민이 열망해 왔던 호남고속철도 개통이 4월초로 다가왔다. 고속철도가 개통되기 위해서는 철도에 투입될 열차편수와 배차간격 등을 정하는 열차운영 계획이 사전에 확정되어야 하는데, 최근 이를 둘러싼 논쟁이 지역갈등의 양상요소까지 변질 뻔하다가 일단락되었다. 지난 2월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KTX 호남선 운영계획에 따르면 4월 개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 운행 KTX는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우리시는 이번 발표안에 대해

호남고속철도를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흡족하지는 않지만 대응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지난 2월 6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입장 표명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동안 우리 시를 포함하여 전남·북 3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고속철도는 고속철도답게 운행되어야 한다'는 고속철도 직결운영 원칙을 정부가 수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요구에 비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보다 4회가 추가 편성되었다. 이와 함께 향후 수요 증가에 따라 호남선 KTX 추가 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끌어냈고, 호남 KTX 증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서발 KTX가 내년에 개통되면 왕복 20여 편의 배차 여력이 새로 생겨 호남 KTX의 추가 증편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시가 이번 정부안을 수용기로 한 또 하나의 배경은 지역간 대결 양상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운영계획에 대해 호남권이 이의를 제기하면 대전권도 추가적인

요구로 맞설 것이고, 이럴 경우 지역간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면서 호남고속철도 개통마저 지연될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시가 정부계획을 수용한 이유를 요약해보면, 호남권의 직결운영 요구가 관철되었고 향후 KTX 편수 증가가 가능하다는 정부입장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나 지역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다. 이제 호남고속철도 KTX 운영계획이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는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지역발전의 전기로 최대한 활용하는데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첫째, 지역민들의 호남고속철도 이용 편의성을 증대되도록 고속철도 개통 이후 KTX 추가 증편과 배차간격 단축 등을 철도당국과 지속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 둘째, 그동안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던 광주역 진입요구자 소요시간, 안전성, 경제성 등의 문제 때문에 어렵게

도 이번 정부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기에 앞으로 국토교통부,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북구청 등과 공동으로 광주역 활용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광주 승정역 복합환승센터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넷째,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건설철화 사업을 조속히 착수시켜 현재 6시간대인 광주~부산간 열차 운영시간을 2시간대로 대폭 단축하여 광주가 호남선과 경전선의 철도 환승 거점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호남권 교통 지형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시와 타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은 고속철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고속철도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시는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호남고속철도 개통이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대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시장·군수 재량권 행사법 위에 있지 않다

전남지역 시장·군수의 재량권 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단체장들이 관계법령은 무시하고 개발·사업 인허가를 멋대로 판단해 불허하면서 주민은 물론 민간기업의 피해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9월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사업자나 주민이 시·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198건 가운데 일부 인용과 인용은 모두 73건으로 40%에 육박하고 있다. 인용비율이 높다는 것은 인허가 신청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바꿔말하면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군수가 자신들에게 부여된 범위를 넘어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다. 우려스러운 것은 자치단체의 패소건수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다. 불특정 다수의 민원이나 실체가 없는 환경훼손 등을 들어 불허하고 있다는 사유가 공색하다. 심지어 담당공무원과 사전협의의 통해 문제점을 보완했는데도 이유없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지나친 재량권 남용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인허가 신청자 중에는 대규모 기업가도 있지만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소규모의 영세업자도 있다. 허가가 미뤄질수록 오렌 법적 다툼 끝에 허가를 받더라도 그동안 지출한 비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그들이 떠안게 된다. 특히 일부 시장·군수들은 자신의 선거를 도운 주민사람들을 돕거나 차기 선거구도까지 염두에 두면서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결정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적인 계산까지 하게 되면 재량권은 법의 한계를 넘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단체장 재량권은 결코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단체장들이 주어진 힘을 앞세워 민원인들에게 억울한 물적·심적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재량권 사용에 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남도 역시 시·군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를 철저히 감독해 폐단을 막아야 할 것이다.

대학 기숙사 '별 따기' 힘겨운 외지 학생들

신학기를 앞두고 외지에서 광주로 올라온 대학생들은 힘겹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 대기도 벅찬데, 주거난까지 겪고 있으니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다 대학가 인근의 전·월세값과 하숙비도 천정부지로 뛰어들라 집 구하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9월 대학정보 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광주지역 11개 4년제 대학 정원 대비 기숙사 수용률은 2012년 32.3%에서 2013년 31.2%, 지난해에는 30.9%로 매년 하락 추세에 있다. 올해 전남대는 지난달 26일까지 진행된 기숙사 1차 모집 결과, 2423명을 선발해 3342명이 지원해 919명이 탈락했으며 조선대도 1차 모집에서 1435명 선발에 2820명이 신청, 1385명이 떨어졌다. 2차 모집도 1차와 비슷한 수를 모집하지만 경쟁률이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대 등 다른 대학들도 기숙사가 모자라기는 마찬가지다.

기숙사 선반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대학가 인근의 전·월세 방이나 하숙집을 찾는데 열을 올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집값이 뛰어들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가의 평균 월세 시세는 보증금 500만~1000만 원, 월세 30만~40만 원에 달하며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월 40~50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결국 따지고 보면 문제는 부족한 기숙사다. 현재 각 사립대학들의 적립금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 엄청난 적립금을 쏟아 놓을 게 아니라 기숙사를 확충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대학 기숙사 수용률이 30%인 현 수준에서 이 비율을 적어도 40~50% 이상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대학의 몰염치한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또 학생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無 等 鼓**

1995년 코스모 사태 당시 '프레데터'가 첫 선을 보일 때만 해도 '드론(무인비행체)'이 일상생활에 파고들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군사용에서 시작된 드론은 이제 우리 생활 전 분야에 깊숙이 들어왔다.

가장 일반적인 쓰임새는 물류 택배 분야다. 아마존은 드론을 이용해 올해부터 30분 이내에 상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고 레이크메이드 비어라는 미국 회사는 뉴시타에 맥주를 배달한다.

정보통신 분야에선 구글이 이미 '룬(LOON)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

랜스포머 : 사라진 시대'가 아카데미상을 받는데 기여했다.

사라 3은 최대 120m 고도에서 촬영이 가능하고 초속 14m의 강풍을 이겨낸다. 사전에 지정된 경로를 비행하며 촬영하는 오토파일럿 기능이 탑재돼 상하 180도, 좌우 360도의 넓은 화각으로 생생한 영상을 제공한다.

미국 아칸소대학 고고학팀은 열영상 카메라를 장착한 '시네스타 8' 드론으로 뉴멕시코주 사막에서 1000년 묵은 푸에블로 인디언마을 유적을 찾아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 사는 아담이란 8세 소년은 흔들리는 치아를 실로 드론에 매달아 뽑아냈다. 치과에 가길 두려워하는 아들을 위해 아빠가 제안해 이뤄진 일이다.

급기야 드론이 공개 청혼에도 등장했다. 중국의 록가수 왕펑은 연인인 유명 여배우 장쯔이 생일파티에 9.1개럿 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실은 드론을 띄워 청혼했다. 프리프로즈드 드론으로도 받지 못한 아카데미상을 두번이나 수상토록 한 드론도 있다. '사라 3'이란 헬리콥터형 드론은 지금까지 80여 편의 영화에 동원돼 '007 스카이프'과 '트

**드론 청혼**

<b>光 州 日 報</b>		<b>The Kwangju Ilbo</b>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申港樂</b> 편집국장 <b>程厚植</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 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